

신안 해상풍력 발전 새로운 전기 맞았다

단지 조성 사업 반대 어민들
최근 “즉각 추진” 성명 발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제정될 듯
현안 해결 땀 글로벌 기업 투자

전남의 미래 핵심사업인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왔던 신안지역 어민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이 현 정부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과의 공존, 추정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했던 지역 어민들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신안군은 해상풍력 인허가 원스톱 처리기구 신설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풍력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 에너지의 전송 기반시설 마련 등과 함께 3대 핵심 현안인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어업인연합회가 지난 2일 광주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보고회'에서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 어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신안군어촌계연

합회 등 신안지역 10개 어업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기업들의 RE100 선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합회는 신안지역 경제 활성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등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안군민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해상풍력 추진에 수산업공존방안과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신안군이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어업인 대체사업 및 상생 모델 발굴, 어업인 피해 보상 등의 주민 수용성과 관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신안지역 어민의 의견을 들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어업인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 여건 조성, 합리적인 보상 방안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해 벨기에, 덴마크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포럼, 국제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한 바 있으며, 해상풍력과 관련 덴마크 베스타스,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등 글로벌 터빈 3사의 터빈 공장 등의 유치에 나서는 등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신안 어민들의 성명서는 큰 의미가 있으며, 특별법 역시 올 상반기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해상풍력사업이 반영됐고, 풍력 보급목표도 2030년까지 연 1.9GW로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노인들의 사랑방, 경로당 노후화 심각 ▶6면



광주FC, K리그1 홈 개막전 역대 최다 관중 ▶19면

세계 문화도시 -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제5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5일 화순 이양면 K water 화순 홍수조절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출발신호에 맞춰 힘차게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1정신’ 기리며 남도의 봄을 달렸다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코로나 시름 잊고 힘찬 질주

전국 마라토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동하는 봄 기운을 호흡하고 3·1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다.

호남 마라톤 역사를 대표하는 '제5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5일 오전 8시30분 화순 이양면 K water 화순 홍수조절지에서 열렸다.

〈관련 기사 18면〉

광주일보사와 전남문화, 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마라톤세상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3·1절 의미를 되새겼다.

호남지역 마라톤 시즌을 여는 이번 행사는 코로

나 방역조치 완화와 맞물려 참가자들이 모처럼 코로나 시름을 잊고 마라톤을 즐겼다.

대회 코스도 도심에서 벗어나 마라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안겨줬다. 건각들은 홍수조절지 일원을 달리며 봄 기운이 율전변과 남도의 풍광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완만한 평지에서 달렸기 때문에 몸에 무리 없이 적절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완주할 수 있었다"고 코스를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 개인 40km, 20km, 10km 레이스가 진행됐다. 대회 코스는 홍수 조절지 코스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폴코스 남녀 우승은 안규석(45·광주·2시간 47분 12초), 김향희(43·광주·3시간 14분 44초) 씨가

차지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는 호남 마라톤 역사를 대표하는 행사다.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마라톤 저변 확대를 위해 창설한 대회는 1954년 3월 7일 광주~화순간 왕복 32km 구간에서 첫 레이스를 시작했다. 70년대 11회 대회부터는 구간을 광송(光松)간으로 바꾸고 거리도 10km로 단축하면서 초·중등부를 신설, 중·장거리 육상꿈나무 발굴의 산파역을 해냈다. 2005년 40회 대회를 맞아 폴코스를 신설하고 대회 명칭을 '3·1절 기념 광일단축마라톤대회'에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로 변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北미사일 대응’ 美 이지스함 지난주 제주 기항

미국의 주력 구축함 가운데 최신행인 라파엘 페랄타함(DDG-115)이 최근 제주도에 기항했다.

5일 미 해군 태평양함대 따르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은 지난달 27일 제주로 입항해 지난 3일 다른 목적지로 떠났다.

라파엘 페랄타함은 미 해군 중에서도 서태평양

을 관할해 가장 강력하다는 태평양함대 7함대의 주력 수상 전력으로, 만재배수량 9200t에 달한다.

미 해군 주력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의 65번째 함정인 라파엘 페랄타함은 2017년 취역해 같은 알레이버크급이라고 해도 1991년 취역한 초도함보다는 크게 개량된 성능을 지녔다.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행인 배이스라인 9C를 탑재해 고고도와 저고도 미사일 동시 요격은 물론 적 항공기 공격까지 가능하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보여주는 다종·다양한 미사일 동시에 발사해 한미 방공망 무력화를 시도해도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대항공기, 대수상전과 공격 임무는 물론 MH-60 '시호크' 헬기 2대를 탑재해 대잠수함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새싹 추출액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4 주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9일~2021년 05월 05일